

# 사회계급의 개념과 관점

신 행 철\*

## 目 次

1. 사회불평등과 계급
2. 고전사회학에서의 논의 : 마르크스와 베버
3. 현대 사회학에서의 논의 : 신마르크스주의와 신베버주의
4. 계급 개념의 정치성 - 결론에 대신하여 -

## 1. 사회불평등과 계급

사회불평등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그 구조화된 체계를 사회계층화체계(stratification)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계급은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적인 계층화현상을 설명하려는 용어라 할 수 있다. (Crompton, 15 ~ 19)" 그 용어의 의미에 대한 혼란은 종래 계층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상의 논쟁 때문이기도 하고 각 이론들이 설명하려는 대상의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Crompton, 27) 말하자면 동일한 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론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계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층이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 한다. 이때 전자의 입장을 계층이론, 후자의 입장을 계급이론이라고 하는 터이다. 한편 대상이 되는 사회 불평등 현실의 성격차이에 따라 계급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계층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계급개념이 적용되어 타당한 사회 현실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계층개념이 적용되어 좋은 현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이론적인 입장차이가 되었건 대상의 성격차에서 오는 것이건 간에 계층론자들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계층 개념으로 접근하려하고 계급론자들은 그런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그러나 근대 이후의 불평등 현상을 계급체제로 보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기능론적 시각에서는 계층화현상을 그 체계를 이루는 분화된 집단들이 서로 적대적 대립 없이 등급화된 서열체계를 이루고 있는 계층들(strata)의 체계로 본다. 그 대표적인 견해는 Davis와 Moore에서 볼 수 있다. (Davis and Moore, 1945. 242 ~ 249.) 근대 이후의 불평등 현상을 계급체제로 보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입장들을 취하게 된다. 예컨대 기능론적 시각에 대립하는 신갈등론적 계층이론가들은 권력과 강제를 중요시하고 갈등을 강조하면서도 계급이 사회체제를 혁명적으로 붕괴하는 담당자라는 마르크스적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예컨대 Dahrendorf, 1959 참조)

현상에 대하여 계급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려하는 것이다.

계급론에 있어서 계급이라는 개념은 '행동하는' 사회집단이라는 의미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의 구별을 따라 계급을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때 '즉자적' 계급은 행동하지 않는, 사회현실로 존재하는 사회 불평등체계의 구성 단위 집단으로서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자들에게 있어서 이 집단은 계층일 뿐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계급은 아닌 것이다. 계급은 '대자적' 계급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대자적 계급은 당연히 계급의식을 갖는 것이며 그럴 때 만이 계급은 행동하는, 적어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계급이 되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오늘날 계급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보다 포괄적이다.

경험적 현실 속에서 계급 현상을 접근하려할 때는 고용구조 혹은 직업구조를 그 지표로 삼으려하는데 그 지표의 범주로는 행정 당국의 '표준직업분류표'에 근거하는 직업집단들의 상식적인 위계, 직업에 따른 '정통적 합의'의 위신척도, '관계적' 또는 이론적 계급모형 등 셋을 들게 된다. (Crompton, 30 및 같은 책 제 3장) 이 세 범주 중 가장 '대자적' 의미에서 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적' 범주의 그것으로 Crompton은 이 범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이 모형은 명백히 계급이론-특히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론-을 참조하여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불평등구조나 위신을 설명하기 보다는 계급관계의 역학과 현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적 계급모형에 이론적으로 근거한 두 가지 주요한 예는 라이트(Wright)의 마르크스적 모형과 골드소프(Goldthorpe)의 신베버주의적 계급모형이다. 두 학자는 모두 자신들의 계급모형이 '위계적', '단계적'이라기 보다는 '관계적'이라고 주장한다. (Crompton, 30)

사회적 불평등을 둘러싼 사회학적 논쟁의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서로 다른 관점 간에 이루어져 왔다. 하나의 관점은 등급화의 개념에 의존하는 계층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는 계급모델이다. 전자의 경우 계급은-만약 계급이란 것이 존재한다면-수입, 직업, 교육 등이 총화된 체계안에서 개인 혹은 가족의 위치라는 관계적 개념으로 계급을 이해한다.

계급은 고래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적 불평등 뿐 아니라 사회적 위신, 법적 또는 전통적 지위를 묘사하기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사회학의 매우 오랜 논쟁점이 되어 왔다. Marx, Weber, Durkheim 등의 고전사회학자들은 전산업사회 내지 봉건사회로부터 산업 및 자본주의사회로의 구조적 이행기의 사회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핵심 개념의 하나로 계급을 취급했다. 물론 이 고전사회학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비중을 두고 계급개

2)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생산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범주 혹은 집합(aggregate)을 즉자적계급(class-in-itself), 이 즉자적계급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계급 상대를 느낄 때 즉, 계급의식을 가질 때 대자적계급(class-for-itself)이 된다. 대자적계급이 실천적 계급으로서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공동 투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르크스에 있어서 적어도 혁명이론의 관점에서 보아 진정한 의미의 계급이 되는 것이다. (Anderson, 1974, 49~50)

념을 논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계급을 당시 사회의 구조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중심개념의 하나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대전을 치루고 나면서 계급개념은 자본주의적 발전과의 연관성보다는 다차원적 성층 이론을 제시하는 계층론자들로부터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다.<sup>3)</sup> '60년대까지 많은 사회학자들은 계급개념을, 심한 경우, 사회분석에서 유관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맑스주의적 계급소멸론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해 더 이상 지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마저 보인다.<sup>4)</sup> 계급개념을 다차원적 요소로 분해하는데 치중하고 이전에는 개념적 문제의 중심점이던 재산소유관계(property relations)와 같은 것은 오히려 무시되기도 한 것이 이 시기 논의의 주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런 모습은 다시 급속히 변화한다.

한국사회의 계급 및 계층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있었으나,<sup>5)</sup> 1960년대에 와서야 점차 활발해졌다. 계급과 계층의 개념규정을 위한 논의라든지<sup>6)</sup> 실질적인 양적, 질적 연구의 전개 등이 이 때 상당한 축적을 보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연구들은 주로 계층모델의 입장에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계급모델에 의한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상에 관한 분석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나타난다.<sup>8)</sup> 특히 이론적 맥락에서의 계급모델의 구성은 80년대의 몇몇 연구가 착수해내는데, Hagen Koo와 Doo-Seung Hong(1980), Hagen Koo(1982), 홍두승(1983), 김진균(1984), 서관모(1987) 등이 그들이다.

## 2. 고전사회학에서의 논의 : 마르크스와 베버

사회계급에 대한 대표적인 두 관점은 고전사회학의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론적 접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관점의 큰 차이점은 계급갈등에 관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계급갈등을 역사 변동의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계급행동에 그 계급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베버는 계급갈등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계급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베버는 계급갈등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도, 심지어 중요한 힘도 아니라고 보았다" (Crompton p. 31) 마르크스와 베버의 대비되는 측면들이 계급 행동이나 계급갈등에만 있는 것은

- 3) 대표적인 것으로, P. M. Blau and O. D.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1976.
- 4) J. H. Westergaard, "The Withering Away of Class: A Contemporary Myth", in Anderson and R. Blackburn (eds.), *Towards Socialism*, London: Fontana, 1965, pp. 77~113.
- 5) 이상백, "서얼차대의 연원에 관하여", 「한국문화사논고」, 율유문화사, 1934. 및 "서얼금고시말" 「동방학지」, 1954.
- 6) 김채운, "사회계급의 개념도식", 「서울대학교 논문집」 17집, 1964. 107~143.
- 7) 김채운, "한국사회계층론 40년", 「한국사회학」 18집 여름호, 1984. 71~89
- 8) 예를 들면, 김영모,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1979. 305~331.

아니며 이 대비되는 두 관점은 오늘날 까지도 계급이론의 두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 마르크스 -

계급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마르크스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르크스는 계급 개념을 가지고 근본적인 사회조직의 구조를 설명하고자하였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면서 계급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몇개의 계급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언급한 바가 없다. 그의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겨진 「자본론」의 마지막 장(52장, 계급론)에서는 세 개의 계급을 적시하고 있고(Marx, 1959, 3권 941) 1848년의 「공산당선언」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아지의 두 개의 계급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마르크스는 그의 저술에 따라 서로 다른 언급을 함으로써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9)</sup> 마르크스는 계급개념과 지배계급과 같은 그 연관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중간계급의 예에서 보는 것 처럼 계급개념들을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했다. (Edgell, 1993, 2) 이것은 그의 서로 다른 저술들이 의도하는 바가 다른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후세에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해석들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마르크스는 과학적인 현실 분석의 차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입장을 취했던 반면에 역사발전의 과정을 설명하고 도래하는 인류사회의 미래를 실천적으로 예측하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입장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두 계급 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P. Calvert의 다음의 서술이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마르크스 : 著자명)가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을 구별해야만 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계급은 무엇 보다도 하나의 분석적 개념이다. 이개념은 과거 역사 전개와 과정과 그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열망을 설명하려했던 개념이다. 한편 그는 그의 역사적 저술 예컨대 「무월 18일」에서 처럼 계급을, 그당시 프랑스 사회에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던 분열상을 명명하기 위한 서술적 어휘로 사용하였다. (Calvert, 11 ~ 12)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적 시기들(고대, 봉건주의, 자본주의)은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데 이 지배적인 생산양식에 기초하여 계급 구조는 억압자인 지배계급과 억압당하는 피지배계급으로 구성된다.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하는 계급인데 때때로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 전체의 도덕적·지적 생활도 역시 통제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법과 정부, 예술과 문학, 과학과 철학 등 모든 영역은 어느정도는 직접적으로 지배계급에 공헌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사회계급이라는 용어는 생산조직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로서, 「공산당 선언」에서 보듯이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직장과 숙련공, 한마디로

9) 마르크스는 자본론이나 공산당선언 이외에도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1852) 등에서 계급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말하면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역사상 상이한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계급들이다. (Bendix & Lipset, 1966, 6 ~ 7)

대체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은 인류사회의 역사 전체에 대해 그 전개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지만 최근의 경제 발전 단계인 산업자본주의체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잉여가치 혹은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효율이 보다 크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체제는 노동을 착취하는 데 보다 탁월한 체계이다. 그리고 그 계급체제는 '단순화'된 특징을 갖으면서 계급 대립도 단순화 하였다고 본다. 「공산당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부르조아지 시대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점점더 직접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부르조아지와 프로레타리아라는 커다란 두 개의 적대적 지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Marx and Engels, 1848, 49) 고 주장한다.

부르조아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고 프로레타리아는 그렇지 못하여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계급이다. 부르조아지가 이윤을 얻고 경쟁적인 경제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 착취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계급 사이의 관계는 적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르조아지는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 대가인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잉여노동의 대가는 이윤이라는 명분으로 착취하게 된다. 임금과 이윤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르조아의 이익과 프로레타리아의 이익은 정반대로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산업자본주의사회의 계급구조는 결과적으로 작지만 훨씬 더 부유한 자본가 계급과 점점 더 가난해지고 소외된 그러나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노동자계급으로 양극화되며, 이러한 양극화의 최종 산물은 혁명적 계급갈등이며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승리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행동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사회가 종식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계급체제의 양극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많은 다른 계급들 및 계급들의 분파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예를 들면, 「무월 18일」 19세기 중반 프랑스에 대한 분석에서 두 개의 주요 계급들 내부의 계급 분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본부문의 분파로는 토지, 금융, 산업을 노동 부문의 경우 분파로는 롬펜프로레타리아트와 프로레타리아트를 들고, 또한 두 개의 과도 계급으로 뼈대부르조아지와 농민을, 그외 중간 계급들로는 군대, 대학, 교회, 법조계, 학계 및 언론계의 고위층을 들고 있다. 「자본론」 1권에서는 노동귀족, 노동계급 중 좋은 보수를 받는 층, 그리고 연령, 성, 기능에 기초하는 노동계급 내의 분파들, 그리고 도시노동자와 도시노동자의 구분에 대하여 언급한다. 「공산당선언」에서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자본가들을 지적하여 하층 중간계급과 중간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결국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론」에서 지적하였듯이 ‘한편에는 노동자를 다른 한편에는 자본가와 지주를 두고 그사이의 입장을 취하는’ 재산없는 중간계급들의 성장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Edgell, 9) 이렇게 보게 되면 마르크스의 이분법적 계급이론은 다른 계급들과 계급 분파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계급관계들이 계급 형성이나 계급 갈등, 그리고 전체적 변동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낳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마르크스의 관점을 요약 정리해 보면 첫째, 중간계급 혹은 계급들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원적

계급구조를 주장한다는 것. 둘째, 대자적계급과 즉자적계급을 구별함으로써 계급의식(적대의식)과 계급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셋째, 노동계급의 혁명성 즉, 혁명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Roberts, 1978, 3)

마르크스의 두 계급 갈등 모델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새로운 무계급사회의 도래를 지향하는 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기대하는 그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 이후 선진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의 양극화보다는 다계급 분화현상이 나타났으며 계급갈등에 의한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두 개의 갈등하는 계급으로 양극화된 자본주의사회라는 마르크스의 모델은 허구적인 측면이 있긴하나 마르크스 시대의 불평등 현상을 묘사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있으며 아직도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 베 버 -

마르크스가 경제적 하부구조 즉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단일 차원의 경제적 요인 만을 가지고 사회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분법적 계급모델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베버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견해는 보다 복잡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사회불평등을 경제적 차원 이외에 사회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추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자원에입각한 계급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위신에 따른 사회적 지위집단을, 정치적 차원에서는 권력에 따른 정치집단을 각각 제시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도 근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상부구조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지만 베버는 그렇게 단순화 시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베버는 "계급", '지위집단'과 '정치집단'은 (각각:  $\text{Klasse}$ ,  $\text{Stand}$ ) 사회공동체 내의 권력 배분 현상" (Gerth and Mills, 181)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베버는 계급을 사회불평등의 한 차원으로 보면서도 경제적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마르크스와 같다고 하겠다. 다만 그의 계급모델은 마르크스의 양극화모델과는 다르다. 마르크스가 생산관계 속에서 계급현상을 파악하는 데 대해서 베버는 시장상황(계급상황)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계급구분도 다양성을 갖는다.

계급상황은 동일한 시장상황에서 상품이나 노동의 판매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동일한 조건을 갖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인데 베버는 계급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급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개연성이다. 1) 재화를 조달하는 것. 2) 생활상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 3) 내적 만족을 얻는 것. 재화와 기능의 상대적 통제력이나 그 수입 발생에서 파생하는 (계급상황의:  $\text{Klassensituation}$ ) 개연성은 일정한 경제 질서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계급은 동일한 계급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Max Weber, 1968, 302)

Gerth & Mills(1968, 181)에 따르면 베버에 있어서의 계급들은 공동체는 아니며 공동체적 행동의 기초가 될 뿐이다. 우리가 계급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삶의 기회가 되는 특징의 원인적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는 경우인데, 그 요소라는 것이 그 상품과 노동시장의 조건

하에서 소득을 얻기위한 상품과 기회를 장악함에 있어서 배타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이다. 결국 베버에 있어서 “계급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계급 상황에 놓인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다.”

이러한 계급도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재산계급(property class), 상업계급(commercial class), 사회계급(social class)이 그것이다. 재산계급은 ‘기본적으로 재산의 차이에 의해서’, 상업계급은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대하여 사회계급은 “이들 계급상황의 종합으로서 그 계급 내에서의 개인적, 세대적 이동이 용이하고 독특하다.”(Max Weber, 1968, 302)라고 한다.

재산계급 체계나 상업계급 체계는 각각 유리한 계급과 불리한 계급의 두 계급과 그 두 계급 사이에 ‘중간계급’을 두고 있는 삼분법적 구조를 제시하면서 서 마르크스의 이분법 체계와는 다른 견해를 취한다. 재산계급에 있어서는, 특전을 받는 유리한 계급은 토지, 광산, 시설 등의 임대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임대소득자들이고 특전을 못받는 계급은 부자유자, 낙오자, 빈민들이며 ‘중간계급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양한데 농민, 장인, 관리 등이 그에 해당한다. 상업계급의 경우에는, 유리한 특전 계급에 기업가(때로는 전문가와 독점적인 기능 소유자)가 해당되는데 이 계급은 그들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경영을 독점하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급이고, 특전을 못받는 계급으로는 다양한 자격요건을 갖는 숙련,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상업계급체계에 있어서 ‘중간계급’에 해당하는 집단으로는 사무직원과 때로 특전계급에 들어가기도하는 ‘자유전문직’과 독점적 기능을 갖춘 노동자집단을 들 수 있다. (Max Weber, 1968, 303~304)

그러나 베버에 있어서 계급 개념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회계급’(social classes)이다. 베버는 사회계급들로서 “(1)전체로서의 노동계급, (2)뿌리 부르조아지, (3)무산 인텔리겐차와 전문가(기술자, 다양한 종류의 화이트칼라 피고용자들, 공무원들- 이들은 훈련 비용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차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4)재산과 교육을 통하여 특전을 얻은 계급들”을 들고 있다. (Weber, 1968, 305) 이러한 베버의 입장은 사회계급체계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간에 구중간계급인 뿌리부르조아와 신중간계급인 화이트칼라층을 두는 다분법적 체계로 보는 것임을 알 수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급들이 반듯이 계급의식을 갖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베버에 따르면 계급의식의 조직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성공하게 된다.

- 1· 직접적인 경제적 상대방(… 주주가아니라 기업가…)에 대항하여, (2)동일한 계급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 때, (3)사람들을 조직화하기가 쉬울 때, 특히 사람들이 ‘작업공동체’ 내에서 처럼 일하는 장소에 집중되어 있을 때, (4)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쉽게 이해되고 있을 때 …, (Weber, 1968, 305)

위의 인용문을 풀어설명하면 (A. Giddens, 1971, 165~6) 계급의식은 (1)적대적 계급이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일 경우, (2)동일한 계급상황을 공유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 (3)의사소통과 회합을 조직하기가 단순한 경우, (4)문제의 계급에 리더쉽이 마련되는 경우에 가장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형성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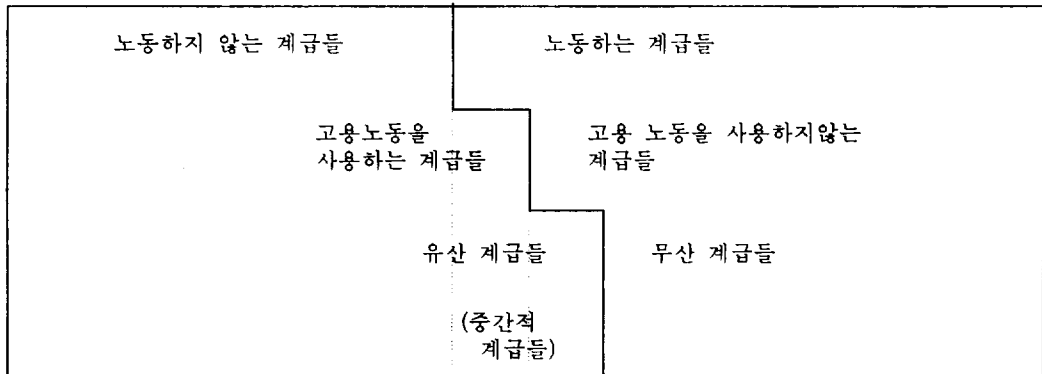
못한다면 계급의식은 현재화되지 않는 것이며 '사회계급들'은 단순히 계급상황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사한 계급상황을 공유하면서도 그들 이익을 신장시키기위한 어떤 조직도 형성하지 않는 집단들도 있는 것이고, 재산 분배상의 불평등이 언제나 계급투쟁으로 이끄는 현저한 요소가 아니며, 불리한 처지에 있는 계급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계급갈등은 없다. 역사상 많은 시기에 있어서 그러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베버는 계급들 사이의 갈등이나 적대감이 계급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시장상황에 있어서의 중심 문제는 노동 가격의 결정이라는 것. 둘째, 보다 철저한 적대감은 관리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계급의식을 계급갈등에 관한 지으면서도 Marx가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을 갖게되는 필연성을 너무 강조하였다는 점. (Stacey, 1976, 67~68) 이와같이 Weber에 있어서의 계급은 시장상황의 객관적 속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마르크스에 있어서와는 달리 반드시 대자적 성격의 것(class - for - itself)은 아니다. 이 점은 베버가 마르크스와는 달리 그의 계급이론에서 계급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 3. 현대 사회학에서의 논의 : 신마르크스주의와 신베버주의

고전사회학의 대표적인 두 관점, 마르크스와 베버의 관점에 대해 196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 된다. Marx와 맑스주의 도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 때에 사회학의 전문분야에 걸쳐서 있게되고,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력들이 나타난다. Ossowski(1963)는 60년대 초 이런 노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를 종합적으로 재해석, 마르크스의 개념에 있어서의 이분법적 도식의 계급구조를 새롭게 해석하고(〈그림 1.〉 참조), '계급구조에 대한 해석의 유형들'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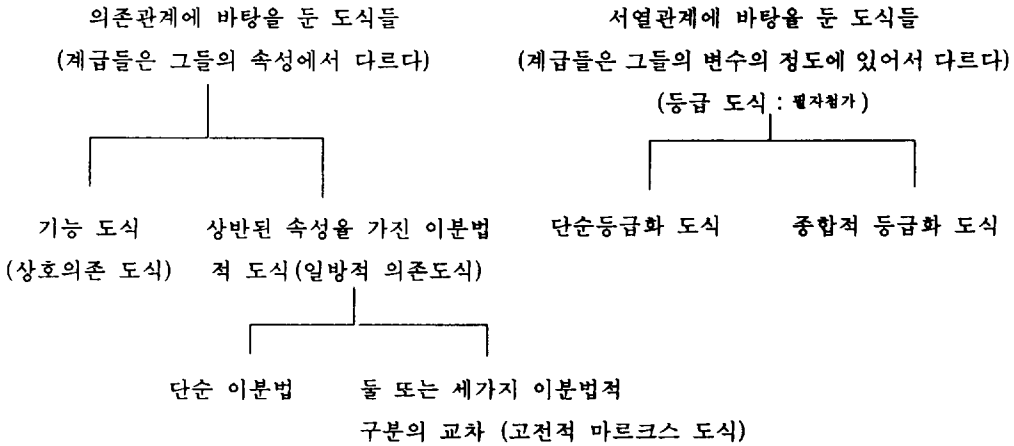
〈그림 1〉 이분법적 계급 개념의 해석



출처 : Ossowski, 78.



〈그림 2〉 계급구조에 대한 해석의 유형들



출처 : Ossdowski, 1963, 152.

그 이후 이런 변화는 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끌려지게 되는 것인데 특히 유럽의 신마르크스 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다.<sup>10)</sup> 고전사회학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조직화된 사회 상황에 적합한 맑스주의적 분석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다.<sup>11)</sup>

그런데 이들은 계층론자들의 지위서열적 개념화에 반대함은 물론이고 재산소유관계보다 시장상황을 준거로 계급을 규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이 시장상황에 준거를 두는 입장은 곧 신베버주의적 계급이론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역시 계층론자들과는 구별되는 개념화를 시도한다.<sup>12)</sup> 대부분의 계층론자들은 계급구조 그 자체에 대한 모델은 제공치 않을뿐더러 계급을 어떤 고유한 또는 필연적인 구조가 없는, 경험적으로 배열되는 개방적인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려 한다. 이는 신마르크스주의자나 신베버주의자들이 계급구조에 대한 개념화를 이론화의

10) 예컨대, N.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 (London : New Left Books, 1973)와 그의 또다른 저술,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 New Left Books, 1975), 그리고 G. Carchedi,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등.

11) 사실 그동안 변화된 자본주의 사회는 이른바 소유와 통제의 분리양상이라든지 공적소유와 사적소유의 발달, 신중간계급의 문제 등으로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도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분석은 보다 복잡하고 더 추상적인 계급모델의 개발과 이를 통한 맑스주의적 해석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Poulantzas, *op. cit.*, (1973)과 Carchedi, *op. cit.*, 및 T. Johnson, "What is Be Known? The Structure Determination of Social Class", *Economy and Society*, Vol. 6, (1977) pp. 194~233을 참조.

12) 대표적인 신베버주의 계급이론가 중 몇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 Giddens,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 Hutchinson, 1981); F. Parkin, *Marxism and Class Theory : A Bourgeois Critique*, (London : Tavistock, 1979); J. H. Goldthorpe, (with C. Llewellyn and C. Payne),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rdern Britain*, (Oxford : Clarendon Press, 1980; 2nd edn 1987).

중심에 두는 것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경향인 것이다. 결국 지금에 와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논의의 큰 부분은 이러한 신마르크스주의자, 신베버주의자 그리고 계층론자들이 상호간에 그리고 각 진영 내부에서 펼치고 있는 논쟁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상호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베버주의적 계급이론을 개선된 맑스주의 이론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라는 Kerstholt의 주장은 그런 점을 지적한 한가지 사례가 될 것이다.<sup>13)</sup> 그는 베버주의 이론이 이전에 마르크스주의를 특징화시켰던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의 형이상학적 껍질을 벗겨냈기에 그렇다고 한다. 실제로 베버주의자인 Goldthorpe의 연구는 비마르크스주의적 전제를 통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교의들의 적용가능성을 입증해보인다.<sup>14)</sup>

이러한 베버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간의 교류경향은 역으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화작업에서도 나타난다. 그 좋은 예로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인 Wright를 들 수 있다.<sup>15)</sup> 그는 자신의 초기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베버주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의 후기 작업에서 보이는 합리적 선택 마르크스주의(rational choice Marxism) 역시 베버주의적 사회불평등 이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는 그의 이론에서 베버적 주제인 지배(domination)와 맑스적 주제인 착취(exploitation)를 어떻게 다루었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 마련하는 베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그 주제들을 연결짓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간의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일단 양자가 모두 사회적 관계의 개념에 입각한 계급이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두 진영 각각으로부터 계급개념과 분석 틀이 다채롭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를 간추리기 위해서, 그 중 대표적인 이론가로 신베버주의 진영에서는 Goldthorpe를, 신마르크스주의에서는 Wright를 선정하고 이들이 제공한 모델만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이 글이 차후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예비적 수준의 것임을 미리 한정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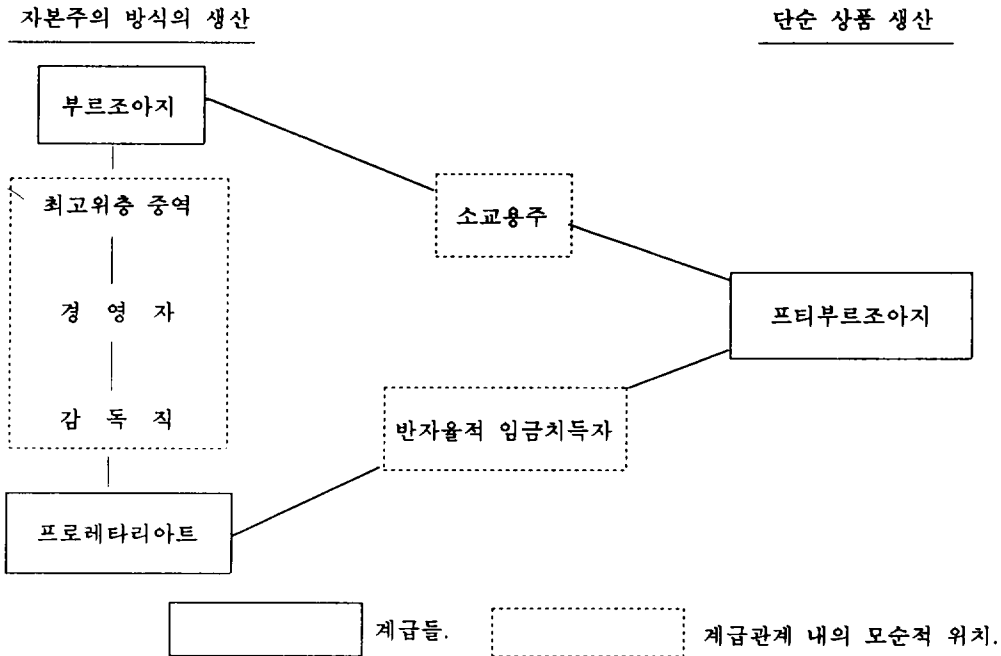
잘 알려져 있듯이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인 Wright는 두 개의 계급모델을 개발했다. 하나는

- 13) F. Kerstholt, "Between Rational Choice and Durkheim Solidarity", in S. Clegg (ed.), *Organizational Theory and Class Analysis: New Issues and New Approaches*, (Belin: De Gruyter, 1989) pp. 113~135.
- 14) J. H. Goldthorpe, "On Service Class, Its Formation and Future", in Giddens and Mackenzie (eds.),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Essays in Honour of Neustad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62~185.
- 15) E. O. Wright의 대표적인 저술로 다음의 들을 들 수 있다. 1978년도의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New Left Books)와 1985년의 *Classes*, (London: New Left Books)가 그것이다. 1978년도의 저술은 1979년에 Verso에서 다시 출판된다.
- 16) 여기서 Wright의 초기 이론은 위의 주 15)의 두 저술 중 1978년도(1979년도 Verso에서 재출판)의 저술에서 제시되며, 후기 작업은 1985년의 저술에서 이루어진다.

모순적 계급위치(contradictory class location)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착취계급(exploitation class) 모델이다.

모순적 계급위치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지닌 기본적 차원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계급이 차별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으로 이해함을 전제로 삼는다.<sup>17)</sup>

〈그림 3〉 라이트의 모순적 계급 위치 모델<sup>18)</sup>



출처 : Wright, 1985, 48.

Wright에 의하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시기에는 세 계급 - 부르조아와 프티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트 - 이 출현했는데 이들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차원들 곧, 소유권(ownership)과 직접 생산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타인의 노동에 대한 권위의 행사라는 세 차원들과의 관련성에 따라 구별된다고 한다. 부르조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노동과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산자이고 자기 노동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권위 역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노동자의 탈속련화, 소유와 통제의 분리, 관료제적 위계(bureaucratic hierarchy)의 발달이 병행되고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세 차원들은 수렴되지 못한

17) Wright의 앞의 책 중 1978년의 것과 1979년의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을 참조할 것.

18) Wright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계급 체제도'라고 한다.

다. 이 비수렴화(non-convergence)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차원들이 차별적인 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세 형태의 모순적 계급위치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세위치는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지만 노동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관리자 및 감독들과 노동에 대해 단지 최소한의 권위만을 갖는 소규모 고용인(small employer), 그리고 노동자와는 달리 자신의 노동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반자율적 피고용인(semi-autonomous employees) 들을 지칭한다. 결국 이 모델에 의하면 선진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트, 싹티 부르조아, 소규모 고용인, 관리자 및 감독, 반자율적 피고용인이라는 여섯가지의 계급적 위치로 특징화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Wright의 착취계급 모델은 이상의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에 대한 자기 비판과정에서 그 자신 스스로 새로 제안한 것이다.<sup>19)</sup> Wright는 모순적 계급위치의 모델의 문제점과 함께 두 모델이 서로 다른 몇가지 중요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sup>20)</sup> 첫째, 특정의 계급관계가 이중적 또는 이질적 위치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모순적 계급위치라는 개념자체가 맑스주의 테제로 볼 때 모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둘째,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차원이라기보다 특정 작업환경의 결과일 수도 있는 자율성 개념이 모호한 채로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에서 사용됐다고 본다. 그리고 셋째,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넷째로 이 모순적 계급위치 모델이 지배의 문제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달리 착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며 이때의 착취개념은 John Roemer의 이론에서 발전시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sup>21)</sup>

Roemer는 자산(assets)의 불평등한 배분에 근거해서 착취의 개념을 규정했다.<sup>22)</sup> 이를 바탕으로 Wright는 생산수단과 의사결정의 권력, 숙련기술의 불평등 배분으로 노동력이 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각각 생산수단 자산과 조직 자산, 자격 자산(credential assets)에 의한 착취에 상응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자격 자산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한계생산(marginal product)과 관련된 잉여를 점유하게 만든다.<sup>23)</sup>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특정의 자격증이 특정 숙련기술의 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 고용주들이 자격중소지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있게 되는 현상이다. 자격중 소지자들의 임금상승은 그 숙련기술과 관련된 상품의 가격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산할 때보다 높여 놓는다. 이는 자격중 소지자들이 자신들의 한계생산의 가격과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것이지만 그 가격은 한계생산의 가치 이상의 것 곧, 자격중 비소지자들의 한계생산의 가격 이상의 것 된다. 이러한 두 가격간의 차이가 자격 자산의 소유자들이 점유하는 부분이고 자격중

19) Wright의 1985년도 앞의 책.

20) *ibid.*, pp.51~57.

21) Wright가 착취개념의 구성을 위해 주로 의존한 Roemer의 저술은, J. Roemer,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2) *ibid.*, pp.39~40.

23) Wright, *op. cit.*, (1985), pp. 76~77.

비소지자들에 대한 착취라는 것이다.

조직은 권위의 위계를 통해서 통제되는 자산이다.<sup>24)</sup> 이 조직 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령, 노동과정에 대한 의사결정-로 관리자나 관료들이 사회적으로 산출된 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취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조직 자산이 불균등하게 배분됨으로써 생산수단의 비소유자인 관리자나 관료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일 때보다 더 많은 자원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착취 양식은 국가 관료제의 사회 또는 국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Wright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산에 근거한 착취의 형태들을 개념화하면서 12개의 계급들로 구성된 계급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4> 참조) 그 중 부르조아와 소규모 고용인, 썬티부르조아의 세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이며 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나머지 9개 계급은 조직 자산의 통제와 자격 자산의 소유정도에 따라 구분짓는다.

<그림 4> 라이트의 착취계급 모델<sup>25)</sup>

		생산수단 상태의 자산				
		소유자	비소유자(임금노동자)			
노동을 고용할 충분한 자본을 소유하고 노동하지 않는 자  노동을 고용할 충분한 자본을 소유하지만 노동을 해야 하는 자  자신을 위해 일할 충분한 자본을 소유하지만 노동자를 고용 않는 자	1 부르조아지	4 전문경영인	7 준자격 경영인	10 비자격 경영인	+	조직 자산
	2 소고용주	5 전문감독자	8 반자격 감독자	11 비자격 감독자	>0	
	3 썬티 부르조아지	6 전문 비경영인	9 준자격 노동자	12 프로레타리아	-	
			+	>0	-	기술/자격 자산

출처 : Wright, 1985, 88.

베버주의자들은 계급구조의 형태보다 그것을 구성해가는 과정과 동학-사회이동의 유형, 사회적 폐쇄, 계급 구조화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Goldthorpe의 연구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의 계급모델은 현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동의 정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제시된

24) *ibid.*, p. 80.

25) Wright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위치 유형'이라고 한다.

다.<sup>26)</sup>

Goldthorpe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전문직과 관리직 피고용인들을 서비스 계급이라 부르고 이들을 다른 계급과 구별짓고자 한다<sup>27)</sup>. 그는 이 서비스 계급이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모두에서 조직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정교화된 권위의 분화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면서 등장했다고 본다.

이 서비스계급은 다른 피고용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시장상황과 작업상황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계급들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으로 봉사하고 조직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는 과정에서 고용주의 신뢰를 담보해냄으로써 부여받게 되는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며, 보다 많은 승진기회와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음은 물론이고, 작업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권위와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 계급은 최근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탓으로 다른 계급들에게 보이는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이러한 서비스 계급의 개념을 포함한 Goldthorpe의 계급 모델은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Hope - Goldthorpe의 직업의 사회적 회귀도(Social desirability)에 관한 척도의 작성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sup>28)</sup> 하지만 그는 계급모델에 관한 이론적 바탕을 Weber에 두고 사회적 회귀도보다는 오히려 공유된 객관적 작업과 시장상황을 기준으로 직업을 7개의 계급으로 분류해낸다. 그의 일곱 계급은 다음과 같다.

계급 I (서비스 계급 상층) : 자영이건 고용이건 높은 등급의 전문직. 정부와 대규모 산업체의 높은 등급의 관리자를 포함.

계급 II (서비스 계급 하층) : 낮은 등급의 전문직과 높은 등급의 기술직, 낮은 등급의 관리자. 소규모 기업체나 조직의 관리자와 비육체 노동자 의 감독을 포함.

계급 III (일상적 화이트 칼라) : 정부와 기업체의 비관리직의 사무직 또는 판매직 종사자들.

계급 IV (자영 노동자) : 자영이거나 10명 이내의 피고용인을 두지만 전문직종사자가 없는 자영인.

계급 V (감독) : 어느 정도 육체노동의 성격을 띤 낮은 수준의 기술직과 육체노동자의 감독.

계급 VI (숙련 육체 노동자) : 모든 산업 분야의 숙련 육체 노동자.

계급 VII (비숙련 육체노동자) : 반숙련 또는 미숙련의 모든 육체 노동자와 농업 노동자.

26) Goldthorpe (with C. Llewellyn and C. Payne)의 1980년도의 앞의 책과 Goldthorpe 의 1982년 앞의 논문.

27) Goldthorpe, *op. cit.*, (1982) pp.168 173.

28) Hope - Goldthorpe의 척도에 대해서는 J. H. Goldthorpe and K. Hope, *The Grading of Occupations*, (Oxford., 1974)를 참조.

Goldthorpe에 따르면 이것은 “유사한 시장상황과 노동상황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 계급으로” 묶은 것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구성원들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전형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직업 범주들을 결합한다. 하나는 경제적 안전성과 성취 기회, 수입의 원천과 수준, 그 밖의 고용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이 종사하는 생산과정을 지배하는 권위와 통제의 체계 속에서의 위치이다. (Goldthorpe, 1987, 40).

이렇게 구성된 범주들은 서비스 범주, 중간 범주, 노동 범주의 세가지로 묶을 수 있다. 즉 계급 I과 II는 서비스 계급, 계급 III, IV와 V는 중간 계급, 계급 VI과 VII은 노동계급이 그것이다. 이런 Goldthorpe의 계급도식은 신베버주의적 계통으로서 베버의 기본적 두 계급요인인 교환을 위한 부의 소유와 시장성 있는 지식/기술을 하나의 모형안에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지적되고 있다. (Edgell, 28).

#### 4. 계급 개념의 정치성 - 결론에 대신하여 -

사회불평등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 매력의 하나는 어떤 맥락 안에서 구조적 불평등인 재관적 계급유형과 정치적 갈등 및 투쟁으로의 과정을 연결짓는 고리를 마련해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결고리를 규명하고자 할 때 맑스주의 행위이론의 두 축을 이루는 계급이해와 계급의식이라는 두 개념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고전적인 맑스주의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것들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다. 곧, 계급구조의 양극화와 근로대중의 궁핍화를 수반하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강화는 결국 그 자본주의 자신을 변형시킬 담지자(agent)를 창조해내고야 한다. 이 담지자란 다름아닌 프롤레타리아트를 일컫는 것인데 맑스주의 도식에서는 이 혼련되고 자의식을 지니며 연합된 프롤레타리아트가 즉각적인 계급의식을 초월하고 자기지양(self-abolition)을 통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이론이 맑스주의 이론들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Lockwood의 지적을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다.<sup>29)</sup> 이 점에서 베버의 계급 개념이 사회불평등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강점을 갖는다고 볼 수있는데 그것은 계급행동의 차원을 계급 개념에 선택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더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이루어지는 계급의 개념이나 그 관점에 대한 논의들은 결국, 일찍이 벤딕스와 립셀(1951, 150)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급의 상이한 이론 사이의 논란은 종종 정치적 지향에 따른 실질적 갈등의 대치물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29) 구체적인 논의는 D. Lockwood, "The Weakest Link in Chain? Some Comments on the Marxist Theory of Action",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Vol. 1, (1981) pp.435~481을 참조.

## 참 고 문 헌

- 김영모,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1979.
- 김진균,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한국사회 변동연구(I)」, 서울: 민중사, 1984.
- 김채운, "사회계급의 개념도식", 「서울대학교 논문집」 17집, 1964.
- \_\_\_\_\_, "한국사회계층론 40년", 「한국사회학」 18집 여름호, 1984.
- 서관모,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 이상백, "서얼차대의 연원에 관하여", 「한국문화사논고」, 을유문화사, 1934.
- \_\_\_\_\_, "서얼금고시말" 「동방학지」, 1954.
- 홍두승, "한국사회의 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1983.
- Anderson, Charles H.,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Class*, Prentice - Hall, 1974.
- Bendix, R. & S. M. Lipset(eds.), *Class, Status and Power*; 2nd ed., Free Press, 1966.
- Blau, P. M. & O. D. Duncan,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1976.
- Calvert, Peter, *The Concept of Clas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 Carchedi, G.,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 Crompton, Rosemary; 정태환·한상근(역), 「현대의 계급론」, 한울, 1995.
- Dahrendorf, Ral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the Industrial Society*, London: Routledge, 1959.
- Davis, Kingsley & Moore, Wilbert E., "Some Principles of Stratification", *ASR* 10, 1945.
- Edgell, Stephen, *Class*, London: Routledge, 1993.
- G. Carchedi, *On the Economic Identification of Social Class*, London: Routledge, 1977.
- Gerth, H. H. & C. Wright Mills (tran. & ed.),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Oxford Univ. Press, 1958.
- Giddens, Anthony,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 Hutchinson, 1981.
- \_\_\_\_\_, *Capitalism and Mordern Social Theory: An Analysis of the Writings*



- of Marx, Durkheim and Max Weber, Cambridge Univ. Press, 1971.
- Goldthorpe, J. H., "On Service Class, Its Formation and Future", in Giddens and Mackenzie(eds.),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Essays in Honour of Neustad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 K. Hope, *The Grading of Occupations*, Oxpord, 1974.
- \_\_\_\_\_, (with C. Llewellyn & C. Payne), *Social Mob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r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Press, 1980. (2nd edn 1987.)
- Westergaard, J. H., "The Withering Away of Class: A Contemporary Myth", in Anderson & R. Blackburn(eds.), *Towards Socidlism*, London: Fontana, 1965.
- Johnson, T., "What is Be Known? The Structure Determination of Social Class," *Economy and Society*, Vol. 6, 1977.
- Kerstholt, F., "Between Rational Choice and Durkheim Solidarity", in S. Clegg(ed.), *Organnizational Theory and Class Andisis: New Issues and New Approaches*, Belin: De Gruyter, 1989.
- Koo, H. G., "A Preliminary Approach to contemporary Korean Class Structure", in Y. S. Chang, T. W. Kwon & P. J. Donaldson(eds.),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er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 Hong, D. S.,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riican Sociological Review*, V. 45, 1980.
- Lipset, S. M. & R. Bendix, "Social Status and Social Structure", *Brithsh Journal of Sociology*, Vol. II, 1951.
- Lockwood, D., "The Weakest Link in Chain? Some Comments on the Marxist Theory of Action", *Research in the Sociolgy of Work*, Vol. 1, 1981.
- Marx, Karl, *Das Kapital*, Dietz Verlag Berlin, 1959.
- \_\_\_\_\_,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e Bonaparte*,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63.
- \_\_\_\_\_, & F.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48.
- Ossowski, Stanislow, *Class Structure in the Social Consciousness*, Free Press, 1963.
- Parkin, F., *Marxism and Class Theory: A Bourgeois Critique*, London: Tavistock, 1979.

- Poulantzas, N.,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 London : New Left Books, 1973.  
\_\_\_\_\_, *Classes in Contemporary Copitalism*, London : New Left Books, 1975.
- Roberts, Kenneth, *The Working Class*, Longman Group Lt., 1978.
- Roemer, J,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Stacey, Barrie, *Psychology and Social Structure*, Mathuen & Co, 1976.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Vol. 1*, (Guenther Roth & Claus Wittch, ed.), Bedminster Press, 1968,
- Wright, E. O.,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 New Left Books, 1978.  
\_\_\_\_\_,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1979<sup>a</sup>.  
\_\_\_\_\_, *Class, Crisis and the State*, London : New Left Books, 1979<sup>b</sup>.  
\_\_\_\_\_, *Classes*, London : Verso, 1985.